이슈분석
ISSUE ANALYSIS

CSF 2017-170

환경오염과 중국인 소비성향의 변화

오종석 중국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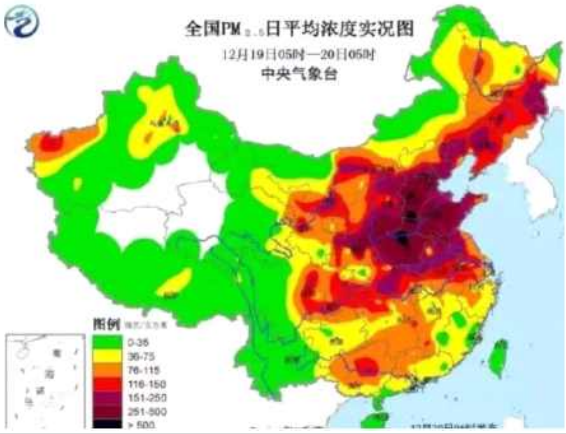
- (현황) 경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중국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함께 고조됨.
- (원인과 분석)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최근 친환경 녹색소비 트렌트가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친환경소비가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 및 소비 유형을 바꿀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생김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임.

1. 이슈 현황

최근 경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중국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함께 고조되고 있음.

□ 2017년 1월 중국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대기 질 현황」에 따르면 전국 338개 지급시 이상 도시 대기 검사 결과 전국 대다수 도시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일부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1. 중국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분포도
(2016.12.19.-2016.12.20.)



자료원: 中央气象臺(http://www.nmc.gov.cn/)

■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2.1배, 한국의 2.2배인 가운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의한 2차 감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

□ 중국 환경보호부에서 발표한 '2016 중국 환경상황 공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중국 338개 도시 중 254곳(75%)의 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00만 명 당 842명으로, 중국인구 13억 7930만 명으로 환산하면 1000만 명에 달함.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2.1배, 우리나라의 2.2배 수준으로 기록함.

□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 규모가 증가함에 중국 지표수(하천, 호수 등)의 32.2%, 지하수의 60.1%도 식수에 부적합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됨. 또한 수자원 취수비율이 OECD가 설정하고 있는 유의수준(20%)을 상회하고 있어 물부족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짐.

□ 중국 토양 오염은 주로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오폐수 유출과 농경지의 농약, 화학비료 남용으로 기인된 것으로 이로 인한 오염면적은 전체의 19.1%에 달했으며 이 중 40%에서 카드뮴, 비소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됨.

2. 원인과 분석

■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친환경 녹색소비 트렌트가 중산층 소비자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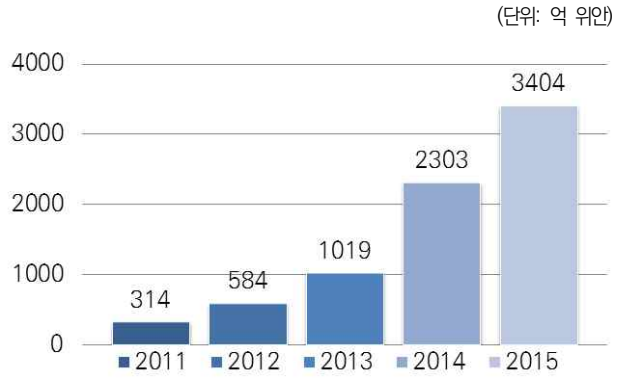
□ 중국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 가능함. 첫째는 건강 및 웰빙을 중심으로 한 소비이고 둘째는 보호 및 절약을 중심으로 한 소비임. 전자는 중진국형 소비로 유기농, 무독성 제품을 선호하는 특징을 지닌 개인과 가족 중심의 소비 형태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선진국형 소비로 저탄소, 재활용 여부에까지도 중점을 두는 소비로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까지 고려하는 소비임.

□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중산층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 건강에 높은 가치를 두고 친환경 소비 제품에 추가 비용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음.

- 중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2010년 1만 7,224위안에서 2016년 3만 1,522위안으로 83% 증가
- 프랑스 시장조사기관 IPSO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도시 소비자의 97.6%가 그린에너지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매달 추가 지불 가능 비용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10위안 미만 20.2%, 10위안~30위안 44%, 30~50위안 19%, 50~100위안 3.8%, 제한없음은 3.6%로 총 90%가 넘는 수치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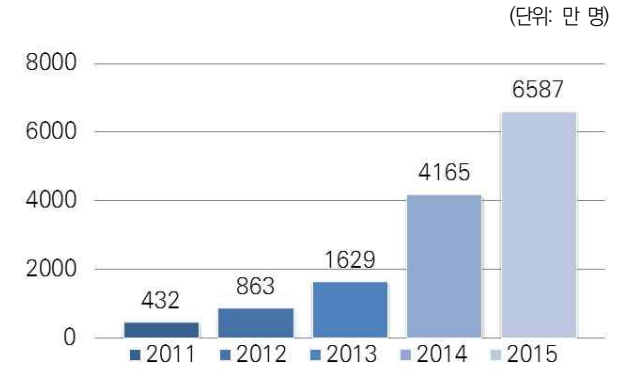
■ **중국의 친환경 녹색소비는 2015년 기준 3,404억 위안으로 2011년 대비 약 10배 증가, 친환경 소비자 수는 6,587만 명으로 2011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남.**

그림2. 중국의 친환경 소비 규모



자료원: Ali research

그림3. 중국의 친환경 소비자 수



자료원: Ali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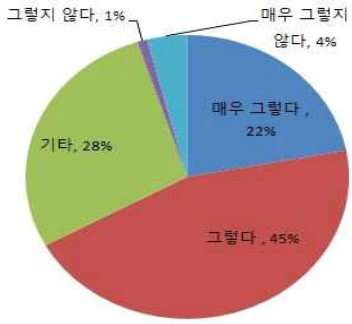
■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발표한 그린덱스(Greendex 2014)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임.**

□ 조사대상 중국인 소비자 중 '환경오염이 자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76%를 차지해 18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답변한 중국 소비자는 67%로 역시 18개 국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그림4. 환경오염이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

자료원: Ali research

그림5.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



자료원: Ali research

3. 전망과 시사점

-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일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됨.**

- **또한,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친환경소비가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 및 소비 유형을 바꿀 수 있는 소비 수준으로 제고됨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한국무역협회
- 중국 기상청
-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경제데이터베이스(CEIC)
- Greendex 2014
- 국내언론자료
- 중국환경보호부
- 한국은행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